

2007. 6. 4 제168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6. 4 제168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도시경영·경제

1. '추억의 벤치' 기부자 모집 (도쿄)
2.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설 (샌프란시스코)
3. 연례 시정토론회 '런던의 현재' 개최 (런던)
4. 일일여행지로서 도시 매력도 상승 (베를린)
5.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품질상' 공모 (베를린)
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혁신상' 공모 (베를린)

복지·문화

7.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운동 장려 (런던)
8. 시민이 직접 식당 부엌 위생상태 점검 (브라질 소로카바市)
9. 빈민층에 태양열에너지 시설 제공 검토 (브라질 상파울루市)
10. 역사유적지 안내책자 발간 (영국)
11. 휠체어 고정방식을 개선한 버스 도입 (도쿄)
12. 연휴기간에 관광객 편의 제공 (북경市 하이디엔區)

목 차

도시환경

13. 단열재 설치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 (런던)
14. 세계에서 가장 큰 '저배출 지역' 지정 (런던)
15. 중·고등학생에게 환경자료집 배포 (영국)
16. 새로운 자동차 NOx·PM법 시행 (일본)
17. 놀이터와 유치원 부지 토양오염 조사 (도쿄都 아다치區)
18. 도시 녹화사업으로 색채녹화 실시 (북경市 화이로우區)

도시교통

19. 택시 안 터치스크린 설치 의무화 (뉴욕)
20. 터널 및 다리 이용료 정산부스 철거 계획 (뉴욕)
21. 자전거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22. 市가 임차보증을 서주는 주거정책 시험 시행 (파리)

방재·안전

23. 런던 홍수예방 전략계획 발표 (런던)
24. 모든 지하철역에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 (교토)

[벤치마킹 사례]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전략’

<주요 내용>

- 런던의 에너지 전략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Be Lean), 재생에너지 사용(Be Green),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Be Clean) 부문으로 나뉘며, 이 중 재생에너지 전략은 ‘런던 재생에너지 운영그룹’이 시장(市長)의 에너지 전략에 부합하도록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한 것임.

<표 1> 런던 에너지 전략의 핵심내용

1. 에너지 절감(Be Lean)	2. 재생에너지 사용(Be Green)	3.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Be Cl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 절약 ▶ 단열재 보강 ▶ 패시브(passive) 냉난방* ▶ 고효율 제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 외부의 재생에너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병합과 지역난방 활용 ▶ 지역 발전(發電)으로 송전 손실 최소화

자료: Greater London Authority, 2004, 「Green Light to Clean Power: The Mayor's Energy Strategy」

* 자연채광과 차광 등을 통한 냉난방

- 에너지 전략의 목적은 기후변화 등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고효율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런던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10년까지 4만 건의 세부사업을 시행해 적어도 665GWh의 전기와 280GWh의 열을 생산하는 것임. 이는 10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1만 가구 이상에 열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며 2020년까지 2010년 보급 목표의 3배로 확대할 계획임.
 - 2003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실시된 태양열 설비 보급사업(Solar for London) 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Sun Rise)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녹색에너지 구매를 도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실천지구’(Energy Action Area) 4곳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인 ‘이산화탄소 무배

출 단지'(Zero Carbon Development)를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조성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보급함.

<표 2> 런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기술	규모	2010년				2020년			
		설치건수	시설용량 (MW)	발전량 (GWh)	생산열량 (GWh)	설치건수	시설용량 (MW)	발전량 (GWh)	생산열량 (GWh)
태양광	가정용	7,000	15	11		21,000	45	34	
	대규모	250	12	9		250	36	27	
태양열	가정용	25,000			35	75,000			105
	수영장	2,000			21	6,000			63
풍력	소규모	500	0.05	55		1,500	0.15	493	
	대규모	6	2	32		18	6	284	
협기성 소화(消化)*			5	40	40		15	120	120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發電)			65	520	780		195	1,560	2,340
총계				667	876			2,517	2,628
총계 목표				665	280			1,995	840

자료: SEA/RENUE, 2006, 「London Carbon Scenarios to 2026」

*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세균이 하수처리나 정수(淨水)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중의 유기물을 섭취해 환원 분해하고, 필요 없는 무기화합물을 방출하는 것

- 런던은 미래의 '수소경제'¹⁾ 구현을 위해 2002년에 이해관계자들과 '런던 수소파트너십'(The London Hydrogen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최근 3대의 수소연료전지 버스 운행과 수소연료전지 택시 프로젝트 연구 등으로 수소 생산 및 이용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

<해설 및 평가>

- 런던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과 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진행 중임.

1)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돼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

- 런던 에너지파트너십, 런던 재생에너지 운영그룹, 런던 수소파트너십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서울시청에 에너지과가 신설됐으나 아직 구청까지는 관련 조직이 설치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와 보강이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해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시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에도 서울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함.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고층 건물이 많아 태양에너지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도시환경이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에너지 수요와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절실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본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조직을 구청까지 확대하도록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 외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 서울에는 고층빌딩이 많고 자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시 구조가 많으므로, 새로 추진하는 뉴타운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부터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뉴타운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함.
- 수소연료전지차를 시범운영하고 버스와 택시 일부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이 용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수소 생산 및 이용기술 과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함.
- 서울시 산학연지원센터와 대학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훈련 과정을 마련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기후변화 완화를 도모하고, 런던과 도쿄,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의 에너지 정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해 미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해 고용기회 창출 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를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시 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 ‘추억의 벤치’ 기부자 모집 (도쿄)

○ 도쿄都是 공원과 동물원 등에 설치할 벤치를 기부 받고 있음.

- 기부자에게는 공원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갖게 하고 기부 받은 벤치로 공원 시설을 더욱 알차게 꾸미기 위해 2003년부터 ‘추억의 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532개 벤치를 설치해 도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100개의 벤치를 기부 받을 계획임.
- 벤치는 디자인이 각기 다른 다섯 종류가 있고, 가격은 1개당 15만~20만 엔 (약 120만~160만 원)임.
 - 벤치에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결혼, 야구대회 우승 등 개인의 추억에 관한 간단한 글귀를 새길 수 있음.
- 기부 받은 벤치는 都 재산으로 귀속돼 일반 이용시설로 활용되고, 사용연한 (7년)이 지나 노후화되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철거되거나 이전됨.

(www.metro.tokyo.jp/INET/BOSHU/2007/05/22h5e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을 기부하고자 할 때 해당 공원관리사무소에 지정기탁서를 제출하면 시청 공원과와 시민협력과에 의뢰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합당한지 심사를 거쳐 결정함.
 - 이 절차에 따라 공원에 기부자 개인의 추억을 담은 글귀를 새긴 벤치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지역주민이 이용함으로써 공원의 시설 투자비 절감과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남산공원의 경우 공원관리사무소 분수대 앞에 시민이 아트벤치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용산 가족공원에 미술가들이 설치한 작품이 있음.

- 하지만 현재 기부 절차가 복잡해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면도 있음. 시설물의 규모나 양이 소규모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해 공원관리사무소 판단에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2.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설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2007년 5월 7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Small Business Assistance Center)를 개설하고, 시청과 중소기업 간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함.

-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하려면 시청 여러 부서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문 매니저로부터 창업 및 기업 확장, 인·허가 과정, 공공조달 업무, 법과 규제 준수, 거래처 소개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됨.

·창업 및 기업 확장에 적절한 법인 구조, 필요

한 자격, 채용 조달 방법, 기업 입지 등을 조언 받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시청에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도 안내 받음.

·중소기업 관련법과 규제를 지키는 방법도 제공 받고 거래처도 알선 받음.

- 뉴섬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시청 내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도시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sfgov.org/site/mayor_page.asp?id=59989)

한줄 뉴스

<런던>

-금융 및 상업 중심지인 도심에 유럽 최초로 광역 무선랜 망을 구축해 2007년 여름부터 운영할 예정

-‘외곽지역 정책’(Mayoral Strategies for Outer London)으로 市 외곽지역의 삶의 질과 소득수준이 높아져
·대중교통수단과 경찰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

3. 연례 시정토론회 ‘런던의 현재’ 개최 (런던)

○ 2007년 5월 12일 ‘런던은 가장 성공적인 세계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연례 시정토론회(State of London Debate)를 열어, 세계도시로서 런던의 성공 요인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룸.

- 런던시장은, 최근 뉴욕시가 발간한 맥킨지 보고서에서 런던이 뉴욕을 능가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서 입지를 세웠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세계도시로서의 런던을 이끌어가기 위한 중점 분야로 도시의 경제성장, 공평한 분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꼽음.

·혼잡통행료와 청소년 무료승차, 매연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의 성공적인 도입과 범죄율 감소, 경찰 서비스 확대 강화 등이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런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런던의 현재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극 대처, 교통혼잡 해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취업 확대, 빈곤층 축소, 2012년 올림픽을 통한 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 현재의 성과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도시발전을 계속해 싱가포르나 홍콩, 뭘바이, 도쿄, 상하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도시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자고 주장함.

- 이 행사는 전자메일로 사전등록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 연설 및 토론 내용은 토론회 홈페이지(www.london.gov.uk/stateoflondon/index.jsp)에 추후 게시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934)

한줄 뉴스

-뉴욕시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뉴욕시 트랜짓(NYC Transit), 전동차가 선로에 근접할 때 선로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시험 테스트 실시

4. 일일여행지로서 도시 매력도 상승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일일여행지로서 베를린市의 매력도가 상승했다고 밝힘.

- 2006년에 일일여행으로 베를린을 찾은 횟수는 1억 500만 회였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임. 일일출장의 경우도 2004년에 2500만 회였는데 2006년에 2700만 회로 대략 8% 상승했음.

·독일 전체를 기준으로 일일여행은 2004년에 비해 2006년에는 5.5%, 일일출장은 1.0% 상승함.

- 연방정부와 베를린市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해 최근 3년 동안의 독일인 일일여행을 처음으로 분석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도시가 최근 관광시장 수요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베를린이 일일여행으로 가장 선호되는 곳으로 나타남.

- 여행목적은 주로 친구 및 친지 방문이고 쇼핑이나 문화행사 참여도 상당한 수치를 기록함.

·여행객은 1인당 평균 35유로(약 4만 2000원)를 지출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5/11/77774/index.html)

5.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품질상’ 공모 (베를린)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품질의 날인 2007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와 브란덴부르크州 경제부가 공동으로 ‘2008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품질상’ 공모를 공식 선언함.

- 베를린市나 브란덴부르크州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고, 2008년 9월 포츠담에서 시상할 예정임.

·공모 마감일인 2008년 3월 31일까지 총 30개 이상의 지역 행사가 진행됨.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품질상은 기업이 가진 품질 잠재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지속적인 개선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품질경영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음.
- 국제기준에서 경쟁한다는 자부심을 기업에 주기 위해 평가과정은 유럽품질경영 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의 기준에 따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5/10/77638/index.html)
(www.q-preis.de)

한줄 뉴스

-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 녹색개발 촉진, 시민의 환경보호의식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정책 실시

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혁신상’ 공모 (베를린)

- 베를린시 경제·기술·여성부는 베를린시나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상품, 방식, 서비스에 대한 ‘2007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혁신상’을 공모함.
 - 혁신상은 1984년부터 매년 베를린시 소재 중소기업에 수여됐는데 1992년부터 브란덴부르크주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음.
 - 수상 기업에는 최고 1만 유로(약 1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2007년에는 처음으로 대기업에도 수여할 수 있게 됨.
 - 주요 협찬사는 베를린은행이며 이외에도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보만 데만 트&파트너 등 우수 기업이 지원함.
- 시는, 혁신상 수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널리 전파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망을 갖춘 상이니만큼 수상 기업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5/03/77160/index.html)
(www.innovationspreis.de)

7.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운동 장려 (런던)

○ 런던시가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런던의 15세 이하 어린이 5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어린이 비만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하루 9시간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과 채 1시간이 못되는 운동량 때문임.

- 비만인 부모와 사는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은 비만이 아닌 부모의 자녀에 비해 10배인데, 런던시민 성인 남성의 2/3 이상과 여성의 3/4 이상은 권장 운동시간에 훨씬 못 미치게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됨.

- 런던시 보건국은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운동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힘. 또 당뇨병과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심의 운동과 관련 시설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함.

- 잉글랜드체육진흥공단(Sport England)과 런던시는 공동으로 2008년 중에 런던 시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임.

·야외활동이나 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정보는 현재 런던시 'Your London' 사이트(www.yourlondon.gov.uk)에 게시하고 있음.

(www.london.gov.uk/londoner/07may/p17a.jsp?nav=health)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어린이와 성인 비만문제 해결과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체육시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시민의 운동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체육시설 및 공간 정보 외에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클럽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시민의 운동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체육과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참여 활성화방안으로 스포츠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체육시설 위치 및 이용가능 여부, 클럽활동, 이용요금, 부대시설, 종목별 운동방법, 동호회 정보 등 생활체육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의 운동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스포츠광장 홈페이지(sports.seoul.go.kr)가 있으나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임.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대상의 운동참여를 위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산책로, 등산로, 자전거 도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노은이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eyn@sdi.re.kr)

8. 시민이 직접 식당 부엌 위생상태 점검 (브라질 소로카바市)

- 브라질 소로카바市에서는 2007년 5월 7일부터 시민이 원할 경우 식당이나 바(bar) 등의 부엌에 들어가 볼 수 있는 ‘키친법’을 도입함. 그동안 식당이나 바노조에서는 사람이 부엌에 드나들 경우 위생상태가 나빠진다고 주장하며 법시행을 반대해 왔음.
- 식당 부엌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품질, 취사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손님이 원할 경우 식당 부엌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식당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함.
- 부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취사 모자를 써야 하며 흡연은 금지됨.
- 18세 미만은 출입이 금지되며 식재료나 주방기구 등을 만질 수 없음.
- 식당 부엌에서 비위생적인 사항을 발견해 공공위생관리국에 신고할 경우 식당은 3800헤알(약 1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2회 이상 신고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estadao.com.br/ultimas/cidades/noticias/2007/mai/03/322.htm)

9. 빈민층에 태양열에너지 시설 제공 검토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전기요금을 낼 형편이 안돼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빈민층 가정을 대상으로 2008년에 태양열에너지 시설 설치를 검토 중임.
 - 현재 빈민층의 10%가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는데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50% 저렴해질 수 있어 연체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파울루 전력공사가 설명함.
 - 상파울루市는 태양열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면 7명 미만으로 구성된 빈민층 가족이 샤워하기에 충분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며, 태양열에너지 시설 설치와 함께 샤워기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상파울루 수도권 지역에서는 불법 전기연결이 40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불법 전기연결로 월 평균 13헤알(약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음. 상파울루 전력공사는 시민의 불법 전기연결로 연 5억 헤알(약 2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음.

(www.jt.com.br/editorias/2007/05/03/ger-1.94.4.20070503.33.1.xml)

10. 역사유적지 안내책자 발간 (영국)

- 영국 문화재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 중부 역사유적지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안내책자인 「유적지 열리다」 (Heritage Unlocked)를 발간함.
 - 영국 문화재청은 8권의 지역 역사유적지 안내책자를 통해 250개의 역사유적지를 소개하며 모든 유적지 입장료는 무료라고 밝힘.
 - 이 책자는 선사시대의 유적, 성, 성당, 전통 농촌가옥, 사라진 마을 등에 대한 상세한 역사유적지 정보로 구성됨.

(www.gnn.gov.uk/Content/Detail.asp?ReleaseID=284006&NewsAreaID=2)

11. 휠체어 고정방식을 개선한 버스 도입 (도쿄)

○ 도쿄都 교통국은 휠체어 사용자가 쾌적하고 원활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고정방식을 개선한 버스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현행 휠체어 고정방식은 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고정벨트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문제가 있음.

- 새로운 방식은 버스 내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 고정판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버스가 갑자기 설 때 오는 충격을 완화하고 좀더 쾌적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휠체어 공간을 빈 공간으로 뒤 유모차 이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고정방법은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것임.

한줄 뉴스

<북경>

-총원區, 건설현장에 디지털영화관을 운영해 문화생활을 하기 힘든 노동자에게 무료로 영화 상영

-핑구區, 구청·산하기관·사회단체 200여 곳의 대민업무용 전화에 교통안전 캠페인 성격의 안내멘트 서비스 실시

-市 수도사업부, '100대 물 절약 가구' 선발

·개조한 변기 물통 조절 장치를 6000여 가구에 적용해 매월 4만 톤을 절수한 것이 우수사례의 하나로 뽑힘.



현행 고정방식



새로운 고정방식

12. 연휴기간에 관광객 편의 제공 (북경市 하이디엔區)

- 북경市 하이디엔區는 노동절 연휴기간에 미소 서비스, 수화(手話) 관광가이드, 에티켓 문화 캠페인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경찰 등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무면허 택시 영업과 무면허 관광가이드 단속을 실시함.
 - 상산(香山) 공원 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절 며칠 전부터 하이디엔區 주최로 회의를 열어 여행객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중교통수단 배차 수를 늘렸으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 등을 시행함.
 - 상산공원의 남산 신설 도로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공원 대표소를 임시로 7개 증설해 공원 이용 편의를 도움.
 - 공원 정문에 8명의 공식 관광안내원을 배치해 영어와 수화로 관광안내를 진행하고 공원 내 식물원 온실 관람객을 위해 무료로 옷을 보관해줬으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와 미아 안내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www.bjd.com.cn/bjxw/bjqx/zjld/200705/t20070509_274478.htm)

한줄 뉴스

<일본>

- 도야마市, 고령자의 사고방지에 중점을 둔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여 음주운전 근절과 자전거 안전 이용 촉구
- 교토府 교탄바町,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떠받들어 함께 사는 마을’을 2011년까지의 장애인 복지시책 지침으로 정하고,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 재검토
 -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는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과 사회복귀를 기본이념으로 함.
- 도쿄都,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 타 업종 진출, 업무 확대 등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델사업 공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 지원이나 전문가를 통한 경영 지원을 하게 됨.

도 시 환 경

13. 단열재 설치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 (런던)

- 런던市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38%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붕 단열재와 이중벽을 새로 설치하는 가정에 市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함.
 - 영국 가스공사와 협력해 저렴한 설치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비용 3만 파운드(약 5500만 원) 중 100파운드(약 18만 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생활 보호대상자 등에는 무이자 대출도 해줌.
 - 런던市는 단열재 설치가 기후변화 대책이 될 뿐 아니라 각 가정의 연간 에너지 비용을 4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단열재 설치에 대한 현금 보상 기간을 정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음.

(www.london.gov.uk/londoner/07may/p12b.jsp?nav=city)

>>> 전문가 검토의견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절약 및 소비효율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에는 가정·상업 부문의 난방과 자동차 연료 소비 등이 도시의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고 있음.
 -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런던市가 추진하는 지붕 단열재 및 이중벽 설치비용의 일부 현금 보상정책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명목적 효과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2007년 4월 2일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서울시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해야 함.

·향후 서울시는 신축 건물의 친환경건물 인증과 함께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실태 진단을 통해 에너지 낭비 요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고, 시민이 이를 실천할 경우 에너지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4. 세계에서 가장 큰 '저배출 지역' 지정 (런던)

○ 런던시장은 2008년 2월부터 시행될 광역 런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저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 계획을 최근 승인함.

-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지역을 지정해 해로운 배출물질을 줄이려는 이 계획은 영국 최초로 실시되며, 실행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저배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런던시장이 말함.

- '저배출 지역' 지정을 통한 광역런던 차원에서의 대기오염 예방계획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런던시장이 말함.

- 궁극적으로는 런던 전체의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계획은 매년 대기오염으로 1000명의 시민이 일찍 사망하고 런던 인구의 72%가 자동차 매연을 걱정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890)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배출원은 자동차며,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일차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은 현재 세계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임.

- 2008년 런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저배출 지역 지정 계획’은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 대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 여과장치의 ‘선(先)부착 후(後)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짐.
 - 런던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좀더 넓은 지역에서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특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서울시는 2009년 시행을 전제로 오염물질 저배출 지역이나 환경지역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런던市 저배출 지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저배출 지역 지정·운영은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맞춤형 자동차 오염대책으로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저배출 지역 지정효과는 자동차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런던 권역과 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큼.
 - 서울 및 수도권 저배출 지역 지정·운영은 향후 친환경 자동차 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한줄 뉴스

<영국>

- 장애인권리협회, 청각 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살아있는 도움’(HelpLive) 서비스 실시
- 국가건강의료향상협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령에 따라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등 체계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주장
-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가 보건비용이 매년 약 3조 원, 흡연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결근, 화재 비용은 약 10조 원으로 추정

15. 중·고등학생에게 환경자료집 배포 (영국)

- 최근 영국정부는 영국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공동으로 만든 환경자료집을 배포함.
 - 이 자료집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과학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함.
 - 환경자료집은 앨 고어가 만든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이라는 환경 관련 DVD 영화와 환경·식품·농촌부가 만든 4개의 환경 영화, 지속가능한 학교를 위한 연중 실행계획(Sustainable Schools Year of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영국 중·고등학교 5000곳에 배포됨.

(www.defra.gov.uk/news/2007/070502a.htm)

16. 새로운 자동차 NOx·PM법 시행 (일본)

-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대도시권에서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질소산화물(NOx)·부유입자상물질(PM)법을 개정해 1년 내 시행할 계획임.
 - 현행법은 3개 대도시권을 대책 지역으로 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통행을 금지함. 개정법은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교차로 주변을 ‘중점 대책 지구’로 지정하고, 교차로의 정체 완화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대책을 실시하도록 함.
 - 중점 대책 지구 내에 호텔과 극장 등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자가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대상으로 배기가스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함.

(www.topics.or.jp/contents.html?m1=1&m2=8&NB=CORENEWS&GI=Politics&G=politics&ns=news_117885200906&v=&vm=1)

17. 놀이터와 유치원 부지 토양오염 조사 (도쿄都 아다치區)

- 도쿄都 아다치區는 2007년 3월부터 도쿄都 조례에 근거해 구립 놀이터와 사립 유치원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47개소에서 26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시안(cyanogen)이, 17개소에서 납이 검출됨.
 - ‘모토키(本木) 구립 놀이터’에서는 시안 오염토양 처리기준치(토양 1kg당 50mg)를 초과하는 62mg이 검출됐고, 납은 사립 유치원과 주택단지에서 기준치(150mg)를 초과함.
 -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區 개발공사 토지로 납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620mg이 검출됨.
 - 문제가 된 구립 놀이터와 區 개발공사 토지에 대해서는 폐쇄 후 표층을 시트로 가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단 시트로 가린 후 아스팔트를 깔아 대처하기로 함.
 -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 8월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임.

(headlines.yahoo.co.jp/hl?a=20070512-00000200-mailo-113)

한줄 뉴스

<파리>

- 市와 市 주택공사, 市 경제합동주택공사가 임대하지 못한 빈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 수립
 - 시민이 빈집으로 등록하면 보조금과 재임대를 위한 분담금을 지원받고, 세제 혜택도 받음.
- 몽파르나스 지역에 있는 시립 수영장이 활성탄 필터를 이용해 물을 걸러내고 소독약 냄새가 덜 나도록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생태 수영장으로 재탄생
 - 2008년 여름에는 장애인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
- 시립 유치원이 빗물을 이용한 정원 관리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 등 수준 높은 환경시스템 운영

18. 도시 녹화사업으로 색채녹화 실시 (북경市 화이로우區)

- 녹화사업 모범도시로 선정된 북경市 화이로우區의 녹화사업으로 은회색의 황금버드나무, 흑녹색의 창송, 취백나무 등을 심음에 따라 녹화사업이 색채녹화와 색채임업의 시대로 접어들.
- 지난 3년 간 화이로우區는 다수종, 다단계, 다기능, 다색채라는 녹화사업 원칙을 정하고 4억 위안(약 492억 원) 이상을 투자해 다품종·다색채 수종을 이용한 녹화사업을 전개한 결과 삼림 관상등급을 높이는 데 성공함.
 - 약 400만 그루의 각종 색채수종을 이용해 황무지와 민둥산에 관상수림을 조성했고, 간선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색채녹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과와 앵두, 배 등 유실수를 심어 연 소득 8000만 위안(약 98억 4000만 원) 이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bjd.com.cn/bjxw/bjqx/zjld/200705/t20070509_274522.htm)

도 시 교 통

19. 택시 안 터치스크린 설치 의무화 (뉴욕)

-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10일 터치스크린 설치 의무화 시행안이 뉴욕市 리무진 택시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뉴욕 시내에서 운행 중인 1만 3000여 대의 모든 택시에 터치스크린 설치가 의무화됨.
- 터치스크린을 통해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승객 탑승 및 최종목적지 위치 정보와 요금 정보가 자동 저장돼 투명한 요금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내비게이션 기능과 영화 시청도 가능함.

- 하지만 상당수의 뉴욕市 택시운전자들은 시스템 설치비용 충당을 위해 요금 이 인상되고, 시스템 설치 및 사용비로 3년 간 7400달러(약 690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택시업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스템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새로운 시스템 시행안 반대집회를 했던 뉴욕市 택시운전자 노동조합 소속 운전자들은 또다시 반대집회를 열 움직임을 보임.

(www.wnbc.com/news/13292077/detail.html)

(www.gothamist.com/2007/05/10/hightech_cab_ad.php)

>>> 전문가 검토의견

- IT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이 교통 분야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택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콜서비스가 정착되면서 GPS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도입이 세계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음.

- 뉴욕市처럼 요금결제에 신용카드 사용, 위치 정보를 이용한 콜서비스 기능 강화,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한 길 안내, 영화 및 TV 시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문제는 장비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 및 부담 전가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터치스크린은 아니더라도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GPS를 이용한 콜서비스 기능 강화와 요금지불을 위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 내비게이션 기능 장착 등을 혼합한 단말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GPS 방식의 콜서비스를 제공할 콜센터가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 지원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라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바市>

- 재래시장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두 달간 상인 450명에게 식품 취급법 강의

- 환경보호를 위해 2007년 3월부터 폐식용유 수거 서비스 실시

- 2007년 5월까지 105개 수거센터에서 3000ℓ의 폐식용유를 수거했고, 이를 비누나 세제 등으로 재활용

20. 터널 및 다리 이용료 정산부스 철거 계획 (뉴욕)

- 뉴욕 및 뉴저지의 공항, 항만, 다리, 터널을 관리하는 뉴욕·뉴저지항만공사는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조지워싱턴 다리와 링컨 및 홀랜드 터널 등 총 6개의 시설물 이용료 정산부스를 철거할 계획임.
 - 현재 이용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칩인 이지패스(EZpass) 장착 차량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산수신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함. 이지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사람이 수동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고 일정시간을 정산부스에 정지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극도로 심함.
 -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할 방식에서는 이지패스 사용자는 변동사항이 없고,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통과 지점에 설치한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찍어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로 요금을 청구하게 됨.
 -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 이르면 5년 내로 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임.

(www.nysun.com/article/54601)

21. 자전거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런던)

- 런던시장은 2000년부터 지속된 자전거 인프라시설 투자가 현재 큰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함.
 - 2007년 3월 자전거 이용자가 2000년에 비해 83% 증가했고, 현재 런던의 하루 자전거 통행량이 48만 회인데 이는 2006년보다 3만 회가 증가한 수치임.

- 런던시장과 런던교통부는 자전거 인프라시설 투자비를 2006년 480억 원에서 2007년에는 50% 증액한 720억 원으로 결정함.
- 주로 자전거 주차시설과 교육, 이벤트, 자전거타기 홍보에 쓰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500km인 런던의 자전거 도로를 2010년까지 900km로 늘릴 계획이라고 市 관계자가 말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791)

도시계획·건설·주택

22. 市가 임차보증을 서주는 주거정책 시험 시행 (파리)

- 파리市는 2001년부터 주거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큰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 하나로 市조합아파트 소유주가 임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집을 임대할 때 市가 보증을 서주는 정책을 시험 시행할 계획임.

- 市는 이번에 특히 사유(私有) 공원 안의 650세대 등 설비가 다 갖춰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나 재임대 등의 시험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인구 증가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주택이 양산됐으나 거주 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됨. 위생이나 화재 등 안전문제도 많이 발생함.

- 市 주택부처에서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어 시행하며, 임차료나 계약 만료 후의 집 상태, 임차기간 동안의 주택 관리 등에 대해 보증을 서고 모든 책임을 짐.
- 파리市는 이번 정책을 통해 1년에 약 250개 정도의 주거를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paris.fr/portail/Urbanisme/Portal.lut?page_id=101&document_type_id=2&document_id=28283&portlet_id=820)

방재 · 안전

23. 런던 홍수예방 전략계획 발표 (런던)

○ 2007년 5월 14일 'C40 대도시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런던시장은, 런던시 산하 'London Resilience Team of the Government Office for London'이 작성하고 런던시와 중앙부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London Regional Resilience Forum'의 심의를 거친 런던 홍수예방 전략계획을 발표함.

- 런던시는 반개방형 하구언(河口堰) 등 첨단 홍수 예방 시설을 설치해 홍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기후변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홍수 위험과 대비 태세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됨.

· 템스강 및 지류에서 홍수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홍수 발생 시 관련기관의 합동 대응방안을 제시함.

- 런던시장은 뉴욕시 홍수 중앙통제소를 방문해 대도시의 열섬 현상과 도시 확장으로 인한 홍수 위험 증가 등 공동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후 양 도시 간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약속함.

(www.londonprepared.gov.u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950)

한줄 뉴스

<베를린>

-2007년 6월 3일 '독일 자전거 클럽' 주관으로 '자전거 도시 베를린'을 홍보하기 위한 자전거 대회 개최

-2002년부터 시작된 베를린장벽 길 공사 완공 후 홈페이지 (www.berlin.de/mauer)를 통해 홍보

-2007년 5월 5일 제3회 정치교육 실천의 날 행사 개최

·개막행사로 청소년과 정치가가 팀을 이뤄 유럽 연합 관련 지식을 겨루는 퀴즈쇼 진행

24. 모든 지하철역에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 (교토)

- 교토市 교통국은 현재 교토역 등 주요 5개 역 개찰구 부근에 자동 심폐소생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1대씩 설치돼 있는데 오사카市 광고대행업자의 제안으로 모든 지하철역에 확대 설치하기로 함.
 -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비용 900만 엔(약 7200만 원)은 광고대행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市에도 연간 88만 엔(약 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함.
 - 설치장소에 광고판을 마련해 구인·주택 정보 등 광고 수입으로 비용을 조달할 계획임.
 - 이미 2006년 가을에 지하철 직원 523명을 대상으로 자동 심폐소생기 취급 연수를 실시했음.

(headlines.yahoo.co.jp/hl?a=20070425-00000028-san-soci)